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 장윤선, 김태완 |

소득이동통계를 이용한 사회이동성 진단

| 권신정 |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함의

| 이주미 |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 임완섭 |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분석

| 김기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OI: 10.23062/2026.06.2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1)]

Public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and Its Implications

장윤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사회이동성 관련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들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기대와 인식 간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개인사를 통해 현재와 15세 무렵 경제생활 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48.8%가 아동기와 현재도 계속해서 중간계층에 머무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신념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인식이 계속될 경우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될 수 있다. 기회구조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구조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한국은 과거 경제성장기에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사회이동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누구나 교육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소득과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었다. 즉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와 같은 사회이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오히려 부모나 조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재산을 활용하여 계

1) 이 글은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존,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장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층이 대물림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사회이동성이 약화되고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도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2009년 48.4%에서 2025년 29.8%로 크게 감소하였다. 세대 내 사회이동성 인식 역시 2009년 35.7%에서 2025년 28.6%로 줄어들었다(국가데이터처, n.d.). 이와 같은 인식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와 같이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낮게 인식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사회이동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5년 자체 조사를 통해 현세대 국민이 느끼는 사회이동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2025년 수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이동성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다시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이동성 조사 개요 및 기초분석

사회이동성 관련 인식 조사는 2025년 5월에서 6월 사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은 2025년 3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 비례배분(성·연령·지역별)을 하였다.

조사 응답자 특성을 보면 50~64세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49세 27.5%였다. 소속된 가구원 수 규모에서는 3인 가구가 32.3%로 많았으며, 2인 및 4인 가구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전문대 포함)가 56.4%로 점유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35.8%였다.[2)]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

[표 1]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전 체〉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사례수 (명)	비율 (%)
		(3,000)	100.0			(3,000)	100.0
가구원 수	1명	(283)	9.4	교육 수준 (학력)	초등학교 이하	(49)	1.6
	2명	(856)	28.5		중학교	(165)	5.5
	3명	(968)	32.3		고등학교	(1,073)	35.8
	4명	(837)	27.9		대학교(전문대 포함)	(1,692)	56.4
	5명 이상	(56)	1.9		대학원 이상	(21)	0.7

2) 조사 대상의 특성, 조사 시기 및 조사 방법에 따라 일부 지표는 기존 통계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표 1] 계속

〈전 체〉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사례수 (명)	비율 (%)
		(3,000)	100.0			(3,000)	100.0
연령대	20~34세	(821)	24.0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51.7
	35~49세	(824)	27.5		호남권	(319)	10.6
	50~64세	(985)	32.8		충청권	(319)	10.6
	65세 이상	(470)	15.7		부울경	(441)	14.7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84)	39.5		대경권	(369)	12.3
	임시직 임금근로자	(185)	6.2	집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74.4
	일용직 임금근로자	(46)	1.5		전세	(584)	19.5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100)	3.3		보증부월세	(159)	5.3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370)	12.3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16)	0.5
	무급가족종사자	(36)	1.2		기타(무상 포함)	(9)	0.3
	실업자	(44)	1.5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1,035)	34.5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1

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소득 불평등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불평등(매우 불평등, 불평등 합계)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 기준으로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보는 비율은 44.2%였다. 자산이 불평등하다고 보는 경우는 49.0%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높았다. 5년 전과 5년 후에 대한 분석에서도 자산 불평등 문제가 높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5년 후 불평등에 대해 매우 불평등해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국민이 인식하기에 불평등에 대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

[표 2]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태의 응답 결과

(단위: %)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소득 불평등	5년 전(2020년)	1.8	35.0	50.4	12.8	0.0
	현재(2025년)	5.8	38.4	44.2	11.6	0.0
	5년 후(2030년)	11.3	30.5	35.6	22.0	0.6
자산 불평등	5년 전(2020년)	2.5	38.1	48.4	10.9	0.0
	현재(2025년)	7.1	41.9	41.8	9.2	0.0
	5년 후(2030년)	14.5	31.2	33.1	20.5	0.8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8

[표 3] 사회 전체 및 분야별 공정성에 관한 응답 결과

(단위: %)

구분	매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사회 전체	1.3	25.9	47.9	24.2	0.7
교육받을 기회	0.8	8.1	25.3	58.8	6.9
일자리 얻을 기회(채용·승진 등)	1.7	22.1	46.2	27.3	2.6
경제적 지위 상승 기회	3.5	28.7	47.5	19.0	1.3
자유로운 기업활동 기회	1.8	18.3	47.2	30.7	2.0
복지 혜택 기회	0.6	13.9	40.8	40.4	4.4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	2.3	24.6	51.1	21.1	0.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4.2	34.5	46.2	14.8	0.3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0

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전체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27.2%로 공정하다고 보는 24.9%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하지 않다'(매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합계)는 비율이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 공정하다 합계)는 것보다 높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38.7%)', '경제적 지위 상승 기회(32.2%)',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26.9%)'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정하다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교육받을 기회'가 65.7%로 가장 높은 공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 '복지혜택 기회(44.8%)', '자유로운 기업활동(32.7%)', '일자리 얻을 기회(29.9%)'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외하고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이동성 인식

가. 사회이동성 관련 국민 인식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제도 및 정책의 방향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신념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사회이동성 인식이 비관적으로 변했음에도 이러한 인식이 불평등에 대한 태도나 제도 및 정책의 방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불평등이 정당화되면서 소득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고 계층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3] 개인이 사

3) Fehr et al.(2024)은 개인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으로 변하더라도 재분배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가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일정 부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적 구조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지속 여부와 사회이동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다.[4)]

사회이동성 관련 국민인식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면 대다수 국민은 사회이동성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이동성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25.4%)에 불과하여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1인 가

[표 4]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	활발하다	보통	활발하지 않다
〈전체〉		(3,000)	25.4	59.2	15.4
성별	남성	(1,520)	24.5	60.3	15.2
	여성	(1,480)	26.4	58.0	15.7
가구원 수	1명	(283)	24.7	52.7	22.6
	2명	(856)	24.5	59.3	16.1
	3명	(968)	25.4	60.2	14.4
	4명 이상	(893)	26.4	59.9	13.7
연령대	20~34세	(721)	26.2	56.7	17.1
	35~49세	(824)	25.4	59.1	15.5
	50~64세	(985)	25.2	60.3	14.5
	65세 이상	(470)	24.7	60.6	14.7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22.4	62.2	15.4
	고등학교	(1,073)	22.4	60.7	17.0
	대학교 이상	(1,713)	27.7	57.9	14.5
경제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근로자	(1,184)	24.5	59.3	16.2
	임시·일용직 근로자	(231)	22.1	59.3	18.6
	고용주·자영업자	(506)	24.9	62.9	12.3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27.3	57.3	15.4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20.8	61.1	18.1
	호남권	(319)	21.0	72.4	6.6
	충청권	(319)	26.3	56.4	17.2
	부울경	(441)	47.8	44.0	8.2
	대경권	(369)	20.9	60.2	19.0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2

4) 정해식 외(2021)는 세대 간 사회이동의 '객관적 실제'와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국가 간 실증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짐을 밝히고,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을 낮추기 위한 사회정책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에 비해 다인 가구에서,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한 고령층보다는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는 청년층에서 사회이동성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일 경우 실업·비경제활동인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영향'을 1순위(43.4%)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2순위(17.3%)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 요인이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순위(17.3%)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3순위(13.6%)로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의 영향'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약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5)]

다만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4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는 않다고 느끼면서도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 대학교 이상,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

[표 5]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3.4	63.1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7.3	38.7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3.6	27.6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6	26.6
경제성장 둔화로 전반적인 기회가 부족해서	9.1	22.7
여성, 청년, 이주민, 소수자 등이 소득, 자산, 일할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3.7	10.2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형평성이 낮기 때문에	1.3	5.0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제도 등 공공정책이 부족해서	0.9	3.9
기타	0.2	0.2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3

5) Bar-Haim(2018)은 국제사회조사(ISSP)에 참여한 40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이 개인의 주관적 세대 간 이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 불평등이 주관적 하향 이동성 인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인식하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표 6]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단위: %)

구분		사례수	높음	보통	낮음
〈전체〉		(3,000)	42.5	50.7	6.8
성별	남성	(1,520)	42.3	50.8	6.9
	여성	(1,480)	42.6	50.7	6.7
가구원 수	1명	(283)	40.6	49.1	10.2
	2명	(856)	40.7	52.7	6.7
	3명	(968)	45.1	48.3	6.5
	4명 이상	(893)	41.9	52.0	6.2
연령대	20~34세	(721)	43.6	49.7	6.8
	35~49세	(824)	43.3	49.2	7.5
	50~64세	(985)	41.9	52.1	6.0
	65세 이상	(470)	40.4	52.3	7.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43.5	49.1	7.5
	고등학교	(1,073)	40.4	52.4	7.3
	대학교 이상	(1,713)	43.7	49.9	6.4
경제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근로자	(1,184)	42.3	51.1	6.6
	임시·일용직 근로자	(231)	40.7	48.5	10.8
	고용주·자영업자	(506)	42.3	51.8	5.9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43.1	50.3	6.6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41.0	50.5	8.5
	호남권	(319)	34.2	64.9	0.9
	충청권	(319)	49.2	46.7	4.1
	부울경	(441)	48.5	46.0	5.4
	대경권	(369)	42.8	48.5	8.7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4

평가 비율이 높았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단 0.7%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6]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국민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 이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이 인식하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물었더니 유사한 수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89.1%)', '취업이나 채용의 공정성(88.0%)'을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 강

6) 정인관 외(2020)는 국내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 및 교육 불평등을 다룬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부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히려 출생 코호트가 최근으로 올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적 상관성이 약화하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되는 것과 달리 실제와 인식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주는 영향

(단위: %)

구분		사례수	영향을 주었음	보통	영향 주지 않음
〈전체〉		(3,000)	68.0	31.3	0.7
성별	남성	(1,520)	66.8	32.6	0.6
	여성	(1,480)	69.3	29.9	0.9
가구원 수	1명	(283)	73.1	26.1	0.7
	2명	(856)	67.4	31.5	1.1
	3명	(968)	68.9	30.6	0.5
	4명 이상	(893)	66.0	33.4	0.7
연령대	20~34세	(721)	73.9	25.4	0.7
	35~49세	(824)	64.7	35.1	0.2
	50~64세	(985)	68.3	30.9	0.8
	65세 이상	(470)	64.0	34.5	1.5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14)	55.6	42.1	2.3
	고등학교	(1,073)	68.9	30.6	0.6
	대학교 이상	(1,713)	69.0	30.4	0.5
경제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근로자	(1,184)	67.3	32.3	0.4
	임시·일용직 근로자	(231)	64.9	32.5	2.6
	고용주·자영업자	(506)	67.6	32.0	0.4
	실업·비경제활동인구	(1,079)	69.6	29.6	0.8
거주지 (권역)	수도권	(1,552)	71.6	28.1	0.3
	호남권	(319)	70.5	29.2	0.3
	충청권	(319)	51.7	48.0	0.3
	부울경	(441)	69.2	29.0	1.8
	대경권	(369)	63.4	34.7	1.9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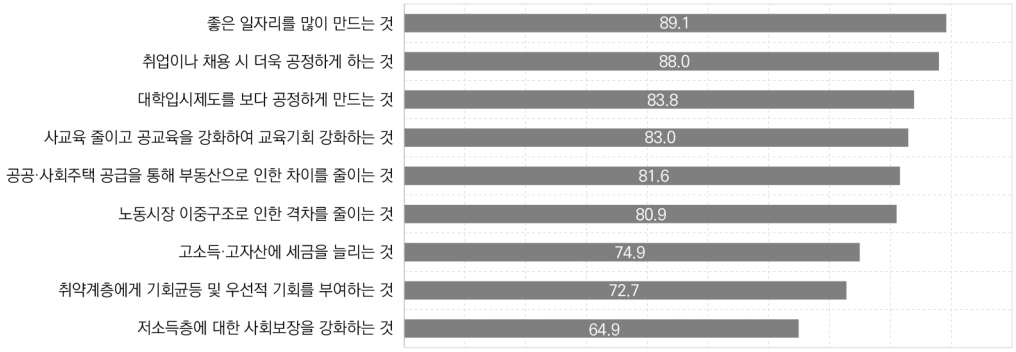
화(69.9%)', '취약계층에게 기회 균등 및 우선 기회 부여(72.7%)'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75.0%)', '소득 및 자산격차 지속(74.3%)', '저출산 및 고령화(74.1%)'를 비슷한 수준에서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차별 및 젠더 문제(48.7%)',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변화(53.6%)'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국민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에서 기회구조를 확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지역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소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개인 수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회구조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구조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대

[그림 1]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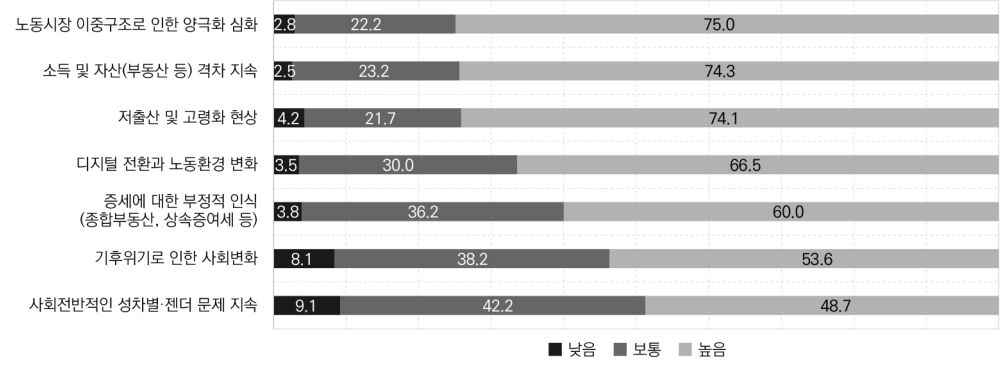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4

[그림 2]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단위: %)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5

응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 사회이동성 인식: 개인의 계층이동 경험

개인이 인지하는 현재와 15세 무렵(아동기)의 경제생활 변화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두 시점 간 비교를 통해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8%가 아동기와 현재도 계속해서 중간계층에 머무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계층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표 8] 현재와 아동기(15세 무렵) 경제생활 상태 비교

(단위: %)

구분		현재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전체
15세 무렵	하층	0.77	2.30	0.97	0.03	0.00	4.07
	중하층	0.37	11.27	19.13	0.90	0.03	31.70
	중간층	0.47	4.47	48.80	3.03	0.03	56.80
	중상층	0.00	0.23	2.90	4.23	0.00	7.37
	상층	0.00	0.00	0.03	0.03	0.00	0.07
	전체	1.60	18.27	71.83	8.23	0.07	100.00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1

의미한다. 현재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07%로 이 중 중간층에서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아서 0.06%에 불과해 아동기 중상층 이하에서 현재 시기 상층으로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소득계층이 아동기(15세 무렵)에 비해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주된 이유로는 ‘교육, 기술 등 나의 개인 역량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41.6%

[표 9]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낮아진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교육, 기술 등 ‘나’의 개인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41.6**	**50.0**	**33.9**	**37.3**	**39.1**	**50.8**
② 직업이나 일자리 수준이 ‘나’의 부모·조부모보다 낮기 때문에	**22.0**	**33.3**	**37.3**	17.0	19.6	10.5
③ 아동기 가정환경(경제적 어려움, 불화, 관계 단절 등)의 영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5.1	0.0	3.4	5.1	6.5	7.5
④ 소득, 주거, 가정 등이 불안정 시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8	0.0	1.7	3.4	4.4	3.0
⑤ 소득, 주거, 가정 등이 불안정 시 주변(친인척, 지인,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7.1	4.2	1.7	8.5	13.0	7.5
⑥ 경제·산업 구조 변화(예: 제조업 쇠퇴, 비정규직 증가 등)로 인해 좋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줄어서	**13.3**	8.3	10.2	**17.0**	6.5	**19.4**
⑦ 계층 상승의 기회가 특정 집단(계급, 지역, 젠더 등)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회 구조 때문	5.9	4.2	10.2	10.2	4.4	0.0
⑧ 잘 모르겠음	1.6	0.0	1.7	1.7	2.2	1.5
⑨ 기타	0.8	0.0	0.0	0.0	4.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3

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도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직업이나 일자리 수준이 나의 부모세대에 비해 낮기 때문'이 22.0%, '경제, 산업 구조 변화'가 13.3%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이 하락한 주된 이유를 주로 자신의 역량, 직업 등의 수준이 부모세대에 비해 낮아진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아동기(15세 무렵)에 비해 현재의 소득계층이 높아지게 된 이유로는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높았기 때문'이 59.4%로 가장 높았는데, 연령에서도 3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가장 낮은 5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교육, 복지, 고용 등)이 계층 상승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비율이 21.1%로 높았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중간계층에 머무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통해 계층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층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 응답 비율에 차이는 있었지만, 계층 상승과 하락 모두에서 개인의 교육, 직업, 노력 등 자기 역량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 기회와 일자

[표 10] 현재 소득계층이 15세 무렵에 비해 높아진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나의 교육, 직업 등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높았기 때문에	**59.4**	**50.9**	**65.8**	**60.8**	**60.3**	**58.1**
② 아동기 부모의 경제적 지원(사교육, 유학, 인적자본 축적 지원 등)이 도움이 되어서	9.3	**25.5**	8.2	5.4	7.8	9.6
③ 아동기 부모의 사회적 관계(조부모, 부모 친구, 부모의 직업 등)의 지원을 받아서	2.0	1.8	1.4	5.4	1.7	1.0
④ 나의 친구, 지인, 선후배 등 사회적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7	0.0	2.7	2.3	2.2	3.6
⑤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3	1.8	2.7	4.6	1.7	1.7
⑥ 사회 전반에 교육 기회나 일자리 등 계층 상승 경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21.1**	14.6	13.7	**20.8**	**22.4**	**23.1**
⑦ 정부의 정책(교육, 복지, 고용 등)이 계층 상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	1.9	1.8	2.7	0.0	2.6	2.0
⑧ 잘 모르겠음	1.3	3.6	2.7	0.8	0.9	1.0
⑨ 기타	0.1	0.0	0.0	0.0	0.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김태완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5

리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 또한 개인의 역량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계층이동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사점

이 글에서는 사회이동성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국민인식조사를 소개하였다. 국민은 사회이동성, 특히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계층이동 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를 통한 결과나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이동성 국민 인식을 보면 다수의 국민은 사회이동성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25.4%)에 불과했다.

사회이동성이 낮은 이유로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영향'을 1순위(43.4%)로 인식하였는데, 2순위(17.3%)와 비교 시 두 배 이상 높았다.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75.0%)', '소득 및 자산격차 지속(74.3%)', '저출산 및 고령화(74.1%)'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동기(15세 무렵)와 현재의 계층 간 비교에서도 65.1% 정도가 동일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층이 고착화되고 사회이동성 정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는 것은 국가가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불안정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이동성이 높지 않으면 청년 등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렵고, 사회의 활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이동성이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분석 결과 사회적으로는 부모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개인의 성취는 노력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에서 기회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회이동성이 활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향 이동도 중요하지만, 하향 이동에 대한 관심도 매우 필요하다. 특히 상층이나 중간층에 속한 개인이나 가구가 급격히 계층 하락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이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계층 하락을 경험하는 위기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계층 하락을 경험하는 가구나 개인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계층 하락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 (n.d.).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3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존,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 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7), 12-59.

정해식, 송치호, 백승호. (2021).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실제와 인식의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289-314.

Bar-Haim, E. (2018). Still great: Subjective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income inequality. *Comparative Sociology, 17*(5), 496-518.

Fehr, D., Müller, D., & Preuss, M. (2024). Social mobility perceptions and inequality accepta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21*, 366-384.

Public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and Its Implications

Jang, Yoon-sun

Kim, Tae-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key findings from a survey on perceived social mobilit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25 involving 3,000 individuals aged 19 and older. While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individuals could improve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their own efforts, many also believed tha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significantly influences that of their children. These findings suggest a gap between aspirations for social mobility and perceptions of the opportunities actually available. When asked how their current socioeconomic status compared with their status at around age 15, 48.8 percent of respondents reported remaining in the middle class, as they had been during childhood, indicating that opportunities for upward mobility are widely perceived to be diminishing. Perceptions of social mobi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dividuals' mobility beliefs, which means that the more persistent the perception that upward mobility is faltering, the more likely it is that social classes will become increasingly rigid. Policy efforts should therefore focus on expanding the overall opportunity structure and reducing structural inequalities that constrain social mobility.